강 령
聖潔 · 希望 · 自由

성결신문

증생 · 성결 · 신유 · 재림

성결신문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기관지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1907년부터 이어온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외 성결가족들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개인 신앙성장과 교단부흥을 선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http://www.sknews.org / 대표전화 : (02)732-1288 SUNGKYUL NEWS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제561호]

선교 117 연차대회 및 102회 정기총회 오는 22일 개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제로 성결대학교서 오는 23일까지 진행

1907년 사중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117여 년간 영혼구원과 대사회 봉사를 위해 전력해 온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제117 연차대회 및 102회 총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사태 이후 3년여 만에 성결대학교에서 진행될 이번 총회는 법정대의원들과 국내외 성결가족, 참관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교 21세기 새로운 부흥과 도약을 다짐하는 총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첫날은 총회임원들이 순서를 맡아 개회예배가 진행되며 형제교단인 기성과 나성의 총회장들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인 임원선거도 첫날 예정되어 있다.

총회장 후보로 현 부총회장인 ▲조일구 목사(한사랑) ▲부총회장후보 김만수 목사(고천), 김원철 장로(평화) ▲서기후보 노윤식 목사(주님앞에제일) ▲부서기후보 송영만 목사(빛과소금) ▲회의록서기후보 이규헌 목사(마포제일) ▲회계후보 황제돈 장로(신림제일) ▲부회계후보 한정수 장로(참좋은)가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2022년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된 101회 정기총회 모습

올해는 모든 직에서 임원들이 단독으로 출마해 예년과 같은 뜨거운 선거전은 보기 힘들었으나 저마다의 소신과 공약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선거운동을 펼쳐왔다. 투표는 올해도 전자투표기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임원후보들의 당선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선거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헌장개정안도 첫째 날 대의원 자격심리에 이어 바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구성된 헌장개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목사)의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상정되어질 개정안들이 처리된다. 특별히 그간 논쟁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저녁시간에는 연차대회가 예정돼있다. OBS 원기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될 연차대회는 교단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아우르는 무대로 진행된다. 교단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원로 교직자들의 입장과 함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세대들에 대한 축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며 바리톤 김민성 교수와 테너 존노의 공연도 함께 마련되었다.

총회준비위 측은 "이번 연차대회를 통해 우리 예성인들이 교단의 자랑스러운 사중복음과 역사, 그리고 부흥하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시대의 소망이 될 성결교회의 미래 비전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회의기간 중 출석체크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별도로 영상출석체크를 병행해 공정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102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는 오는 5월 14, 21일을 총회주일로 지킨다고 공지했다. 제102회 정기총회를 위해 전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총회발전을 위한 헌금순서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교단 창립 117주년 영광과 감사의 역사

1907년 5월 30일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으로부터 시작
교단해산, 순교, 분열 딛고 한국교회 중견교단으로 성장

올해 5월 30일은 교단창립 117주년을 맞는 기념일이다. 2007년 100주년 행사당시 매년 5월 30일을 교단창립 기념예배로 드리기로 한 가운데 올해는 102회 총회 기간 중에 연차대회로 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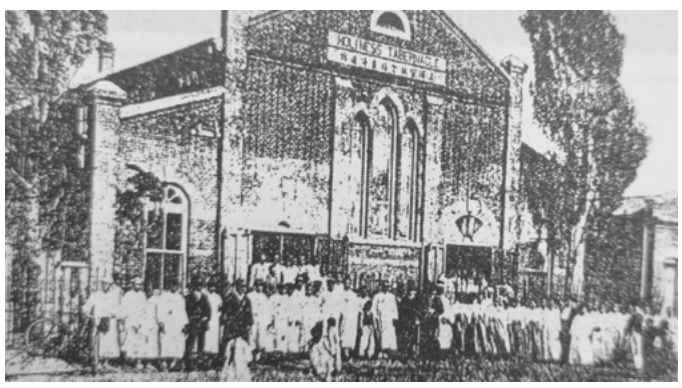
총회장 신현파 목사는 "창립기념일은 교단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지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1907년 동경 성서학원을 졸업한 정 빈, 김상준 두 사람에 의해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 효시가 된다. 타교단과 대별되는 '재림'의 교기로 인해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교회 해산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현재 교단은 34개 지방회와 미주지역 총회, 해외 11개 지방회 산하에 1,300여 개의 교회를 두고 있으며 40여 개국에 25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노원사중복음회관, 강서사중복음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지재단과 자산 110억을 돌파하며 안정된 기금을 운영 중인 은급재단, 우송장학재단을 비롯한 기관들을 두고 있으며, 산하교육기관으로 7개 학부 5개 대학원에 재학생 5,300여 명으로 발전한 성결대학교와 총회성결교신학교, 성결교신대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3군 군종감을 각각 배출한 교단으로 10여 명의 군목을 파송하고 있다.

선교 21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는 대사회 공헌 등 다양한 유무형의 활동을 통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중견 교단으로서, 한국교회와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내는 교단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최초의 성결교회인 무교정(무교동)교회의 모습